

‘정 총리 유임 논란’ 예결위 45분만에 파행

野 “불법 임명 정홍원·물러날 장관에게 보고 못받아”

여야 간사, 오늘 새 장관 임명되면 결산심사 재개키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보고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예결위 간사는 협의를 통해 16일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되면 이들을 출석시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보고받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인사 파동 끝에 유임된 정 총리로부터는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본래 일정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면 결산심사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한 총리가 이 자리에 앉아 답변하겠다는 자체가 기이하다”면서 “무엇보다 오늘, 내일 임명한다는 장관들과 질의응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정래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마 그만두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러갈 부총리를 대상으로 결산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또한 이날 참석 대상 장관 및 기관장 16명이 불출석 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국무위원이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맞섰으며 같은 당

이재의 의원은 “정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줘서 들어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학재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기 전에는 정 총리가 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여야 예결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홍문표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의 시작 45분 만에 회의를 선포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날 회의는 중단하고 16일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되면 이들을 출석시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철은 새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부터)와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 비주류 지도부, 시작부터 ‘친박’에 쓴소리

김태호 “파벌 뒤에서 기득권 유지하려는 모습 반성부터해야”

이인제 “친박 주장하는 분들 의식에 문제...혁명적 변화해야”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출범 첫날부터 친박(친박근혜) 주류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 비주류로 권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5일 수월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없는 보수는 죽은 보수

가 될 것”이라며 “진짜 혁신은 기득권을 몽땅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CBS 라디오에 출연, 친박 주류 측을 겨냥해 “당이 존재감이 없지 않았느냐. 청와대 눈치 보는 모습으로, 권력에 눈치 보는 모습으로, 대통령 이름 팔아 마치 덕을 보려는 모습으로 국

민 눈에 비쳤다”면서 “계파나 파벌 뒤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반성의 ‘키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출장소가 새누리당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은가. 그건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도 사실상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을 주장하

시는 분들 의식에 좀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가 더 가깝다. 자기만이 박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비주류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앉아 국민 민심을 먹고 사는 당의 의견을 강고히 무시하거나, 아예 안중에도 없던 모습을 보였다”면서 “새로운 당정관계, 2기 내각의 출범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김기춘 실장이 거취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관계설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중FTA협상 과정 농어업보호 방안 촉구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물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양허제외’ 방안의 관철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서 지역화 조항을

제외하고,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한중 FTA는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이후, 3개월 만에 기본 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며 현재는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축산식품위 등 여야 의원들은 FTA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서둘러 추진될 경우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무성 “대표는 당원 명령 수행 머슴”

취임 첫날부터 현충원 참배·최고위 참석 등 강행군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가 취임 첫 날부터 강행군에 나섰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윤상현 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묵념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새누리당이 보수대혁신의 아이콘이 돼 우파 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구축하겠다”고 적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하고 국정운영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7:30 재·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의 대표 최고위원은 당원 명령을 수행하는 머슴”이라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적어도 4곳 이상에서 승리해야 원내 과반

을 유지하게 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대표가 되면 대표실을 비우고 곧바로 재보선 현장으로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신임 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와 함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서 박 대통령은 “내각 2기가 이제 시작 된다”며 “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출범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호흡을 맞추기가 좋을 수도 있다”며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제가 수락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풍우동주’다.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대통령을 잘 모시고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비주류의 중심 격인 김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이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ABC인증 호남최대신문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총결산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말한다 !!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샘플링 솜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총자산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7.18.(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토지투자의 정석법 강의(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전국 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강의
(현)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